

해외건설 수주구조 분석 및 경쟁력 강화방안

산업분석부 최지향 선임연구원

| 목 차 |

- I. 개관
- II. 해외건설 수주구조 분석
- III. 전망 및 경쟁력 강화방안

요약

'06~'15년 중 연평균 해외건설 수주증가율은 12.1%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 수주는 GDP 대비 5%, 수출총액 대비 10% 수준으로 성장하며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였다. 다만 '15년 해외건설 수주는 저유가 지속에 따른 중동지역의 플랜트 발주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0.1% 감소하였다.

공종별로는 '06~'15년 중 산업설비(67%), 건축(15%), 토목(14%), 용역(2%) 순으로 산업설비는 '10년 80%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유관련 생산시설이 산업설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기간 중 중동(54%), 아시아(30%), 중남미(6%), 북미(4%) 순으로 중동지역의 수주비중은 '09년 73%를 달성한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는데 비해 아시아지역은 최근 베트남,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15년에는 43%를 차지하여 중동지역을 추월하였다.

사업유형별로는 동기간 중 도급형 수주비중이 97%, 개발형은 3% 수준으로 도급형 수주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12년 이후 개발형 수주비중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수주 규모는 감소하여 '00년대 중반 수준을 하회하였다.

해외건설 수주구조를 분석한 결과, 해외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공종별, 지역별 다각화를 통한 기업 신용리스크 분산 및 수익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비중이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산업설비(공종별), 중동지역(지역별)에 대한 수주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특정 공종 및 지역으로의 편중은 특정 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른 기업 신용리스크 증가 및 유가하락 등 대외요인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구성·운영 및 공동투자,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종별, 지역별 다각화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력 중심의 엔지니어링(용역) 및 투자개발형 수주능력 제고를 통한 해외건설 수주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엔지니어링(용역) 분야는 설계·계획, 운영·관리, 감리 등 기술력 중심의 진입장벽이 높은 고부가가치 분야이나 우리나라 업체의 수주비중은 2%대에 그치고 있으며, 단순도급이 아닌 투자개발형 사업은 사업개발, 지분투자, 제품구매, 설비운영 등 사업의 전과정에 참여하여 수익성이 높은 분야이나 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 선진기업 대비 낮은 수준으로 기술력 확충을 통한 수주확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원천 건설기술의 배양·확보를 위한 공공분야 시범사업 시행 및 국내 업체의 해외 업체와 M&A, 기술제휴 등 검토가 요망된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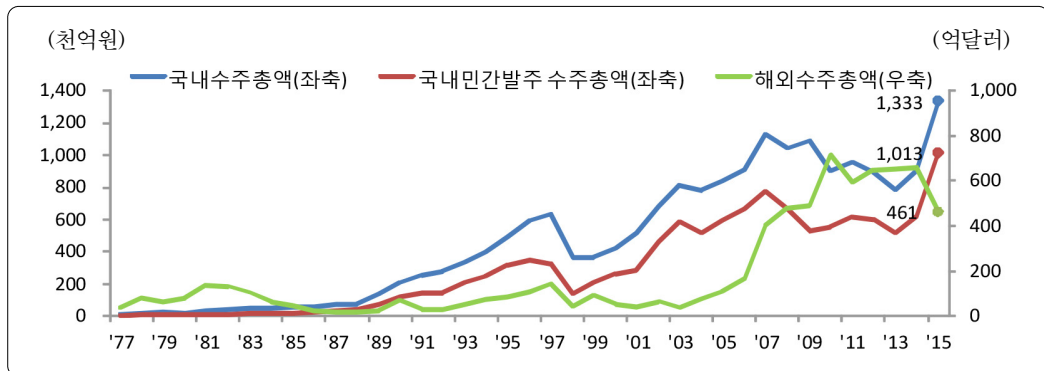
I 개관

1. 해외건설 산업 현황

▶ 해외건설 수주는 '15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큰 폭으로 확대

- '8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호황¹⁾에 따른 국내건설 수주증가 등으로 해외건설 수주는 '00년대 중반까지 국내건설 수주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
 - '77~'05년 중 국내건설 수주총액은 연평균 18.1%, 민간발주 수주총액은 22.0% 증가한 반면 해외건설 수주총액은 4.1% 증가에 그침
- '00년대 중반 이후 중동지역 플랜트 건설을 중심으로 해외건설 수주가 급증하여 '10년에는 역대 최고 수주실적을 달성²⁾
 - '06~'15년 중 연평균 해외건설 수주총액 증가율은 12.1%로 국내건설 수주총액 증가율 4.3%를 상회
 - '15년에는 부동산 경기회복으로 국내건설 수주총액이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48.3% 증가한데 비해 저유가 지속 등에 따라 해외건설 수주총액은 30.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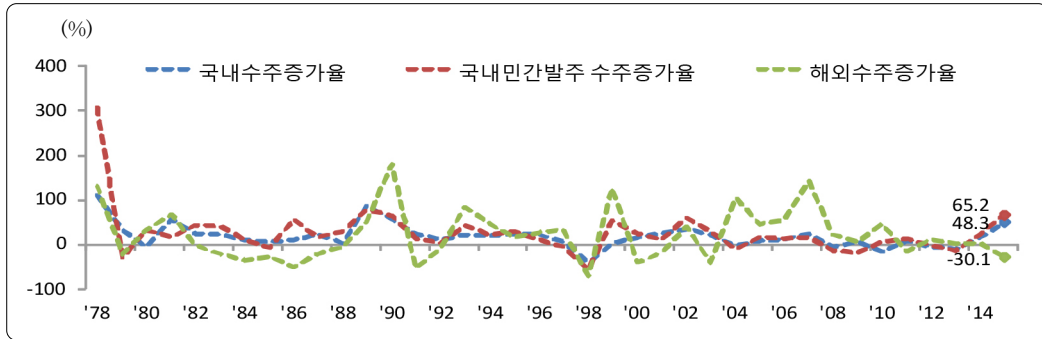
국내 및 해외건설 수주총액 추이



자료 : 통계청, 해외건설협회

1)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연평균) : ('86) 39.7 → ('88) 46.1 → ('90) 61.6 → ('92) 63.5 (자료 : 통계청)
 2) 국내업체 해외건설 단일 프로젝트 중 역대 최대 규모인 UAE원자력발전소 수주건(186억달러) 등 포함

국내 및 해외건설 수주증가율 추이



자료 : 통계청, 해외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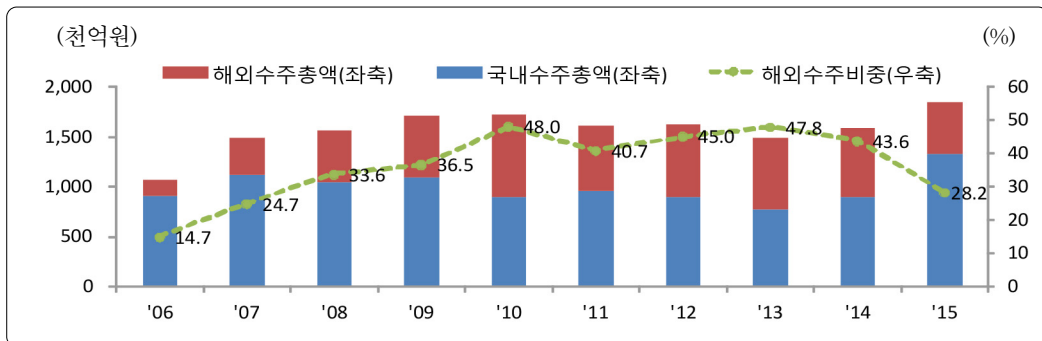
- 해외건설은 국내건설의 대체 산업으로 성장
 - '86~'05년 중 국내·해외건설 수주총액의 상관계수는 0.63으로 국내·해외건설 산업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성장추이를 나타냄
 - '06~'15년 중 국내·해외건설 수주총액의 상관계수는 $\Delta 0.37$ 로 국내건설과 해외건설이 상호 대체적인 산업으로 성장³⁾

국내 및 해외건설 수주총액 상관계수

	1986~2005	2006~2015
국내·해외건설 수주총액	0.63	$\Delta 0.37$
국내민간발주·해외건설 수주총액	0.56	$\Delta 0.42$

자료 : 통계청, 해외건설협회

국내 및 해외건설 수주총액 비중 추이



주 : 해외 수주총액은 당해년 연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자료 : 통계청, 해외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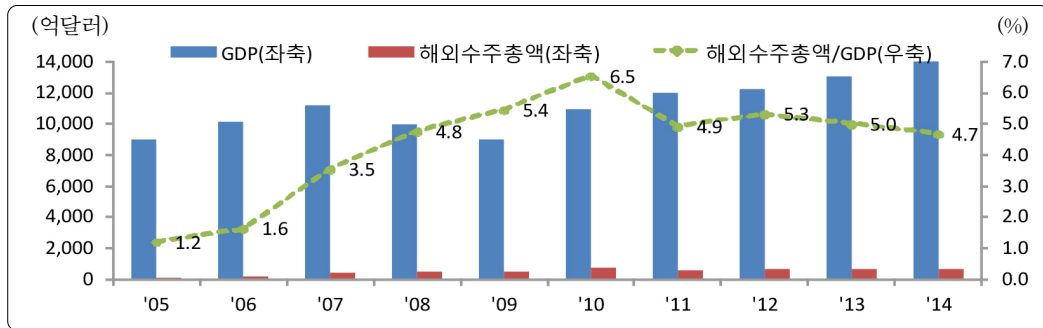
3) 상관계수가 (+)일 경우 두 변수간 대체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일 경우 반대의 방향성을 가짐

2. 해외건설 산업의 국가경제적 위상

▶ 해외건설 수주증가로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

- GDP에서 해외건설 수주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0년대 중반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며 5% 수준을 차지
 - '80년대 중반까지는 국내 경제규모의 협소성 등으로 10% 수준이었으나, 이후 '00년대 중반까지 1~2%대의 낮은 수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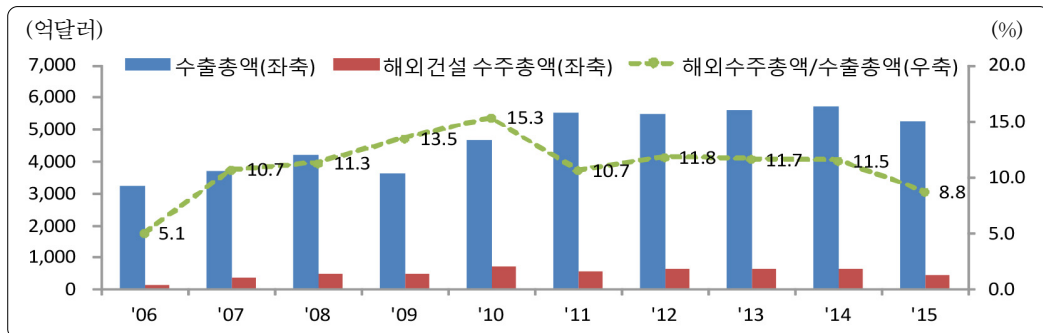
GDP 대비 해외건설 수주총액 비중 추이



주 : 국내총생산은 달러표시 기준
 자료 : 한국은행, 해외건설협회

- 수출총액 대비 해외건설 수주총액 비중 또한 '00년대 중반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며 10% 수준을 유지
 - 해외건설 수주총액이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15.3%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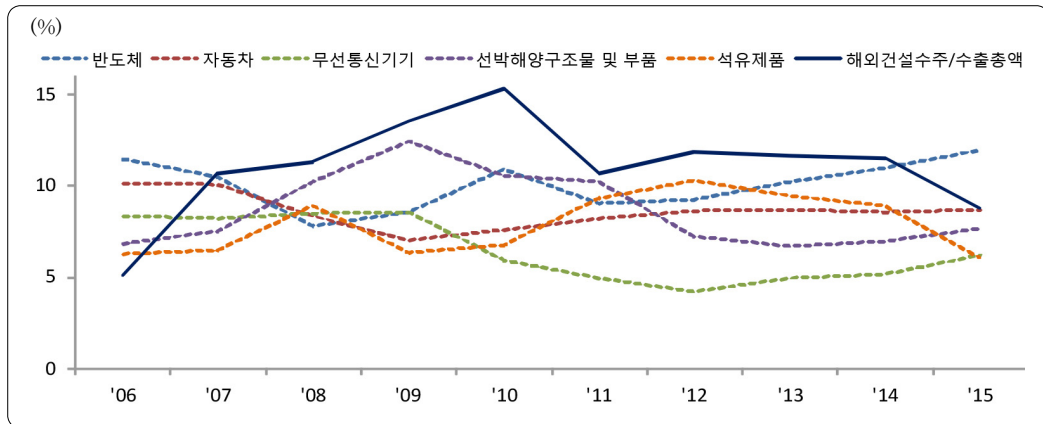
수출총액 대비 해외건설 수주총액 비중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 최근 연간 해외건설 수주총액은 우리나라 5대 주요 수출품목 수출액을 넘어섬
 - '06~'15년 중 해외건설 수주총액은 5,260억달러로 반도체(4,742억달러), 자동차 (4,019억달러), 선박(4,008억달러), 석유제품(3,797억달러), 무선통신기기 (2,916억달러) 등 수출액을 앞지름
 - '15년의 경우 저유가 지속 등으로 해외건설 수주가 전년대비 30.1% 감소하여 반도체 수출액(629억달러)을 하회

주요 수출품목 수출액 및 해외건설 수주총액 비중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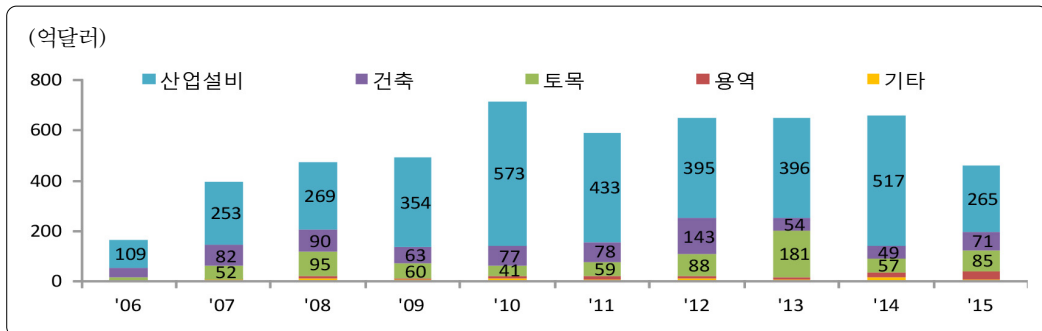
II 해외건설 수주구조 분석

1. 공종별 분석

▶ 정유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산업설비 수주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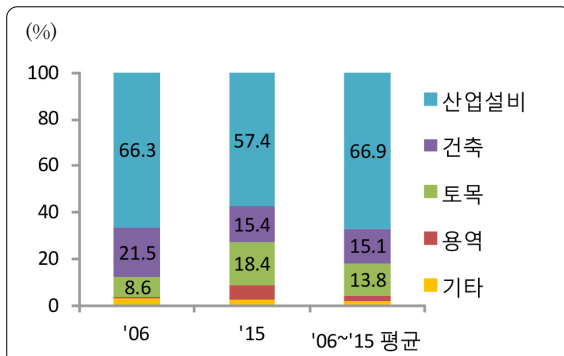
- 공종별로 해외건설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설비, 건축, 토목, 용역 순임
 - '06~'15년 중 산업설비 수주비중은 66.9%로 '10년 80.0% 이후 최근 하락세를 나타냄
 - 동기간 건축, 토목, 용역 수주총액 비중은 각각 15.1%, 13.8%, 2.1%이나, 토목 및 용역이 최근 증가세를 보임

해외건설 공종별 수주총액 추이



자료 : 해외건설협회

공종별 수주비중 비교



자료 : 해외건설협회

'16.1분기 공종별 수주총액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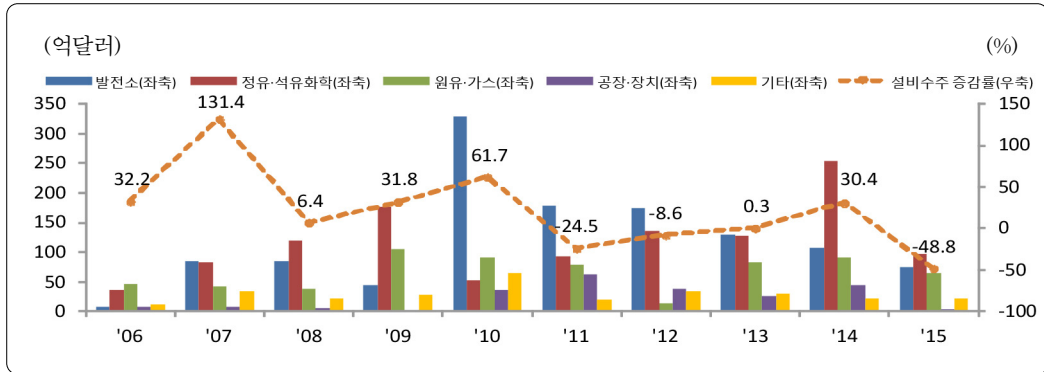
공종	수주총액	증가율
산업설비	51.6	△35.8
토목	43.7	220.3
건축	10.5	△49.1
용역	1.3	△91.4
기타	5.6	68.0

자료 : 해외건설협회

창립62주년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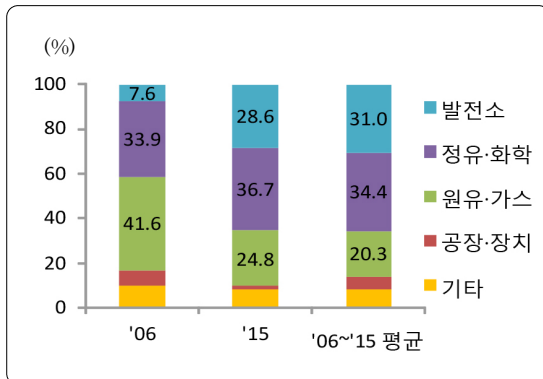
- (산업설비) 해외건설 전체 수주추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세부공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정유·석유화학, 발전소, 원유·가스, 공장·장치 순임
 - '06~'15년 중 산업설비 수주총액 대비 정유·석유화학 및 원유·가스 수주총액의 비중은 각각 34.4%, 20.3%로 석유 관련시설이 절반 이상을 차지
 - 동기간 발전소, 공장·장치, 기타 수주총액의 비중은 각각 31.0%, 5.9%, 8.4%⁴⁾
 - 최근 저유가 지속에 따른 중동지역의 산업설비 발주 감소 등으로 실적저하 우려

해외건설 산업설비 세부공종별 수주총액 추이



자료 : 해외건설협회

산업설비 수주비중 비교



자료 : 해외건설협회

'16.1분기 산업설비 수주총액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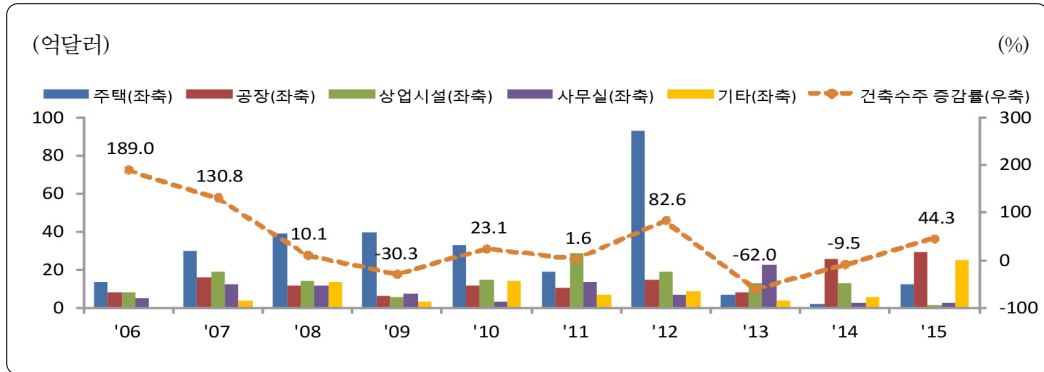
공종	수주총액	증가율
발전소	9.0	△71.4
정유·화학	12.4	694.9
원유·가스	29.2	9.5
공장·장치	0.9	△74.5
기타	0.1	△99.2

자료 : 해외건설협회

4) 산업설비 세부공종별 분류 기준 : 정유화학 = 정유공장 + 정유시설 + 화학공장, 원유가스 = 원유시설 + 가스시설 + 가스처리시설 + 가스저장시설, 공장장치 = 일반공장 + 제철소 + 기계설치, 기타 = 담수화시설 + 파이프라인 + 배관 + 환경설비 + 기타산업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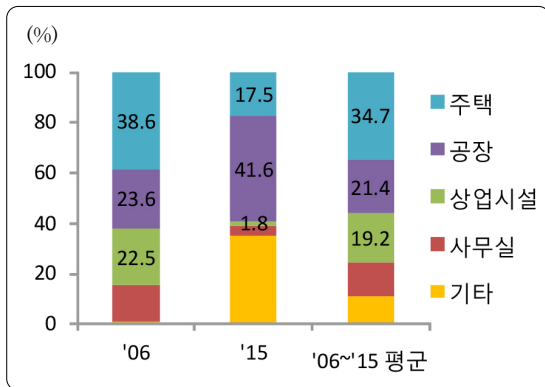
- (건축) '00년대 후반 이후 수주비중이 하락 추세를 나타내며 세부공종별로는 주택, 공장, 상업시설, 사무실 순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06~'15년 중 주택, 공장, 상업시설, 사무실, 기타의 수주총액 비중은 각각 34.7%, 21.4%, 19.2%, 13.3%, 11.3%로 세부공종별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⁵⁾
 - 최근 산업설비 수주감소에 따른 업체들의 공종별 다각화 노력 등에 힘입어 실적 호조세 전환

해외건설 건축 세부공종별 수주총액 추이



자료 : 해외건설협회

건축 수주비중 비교



자료 : 해외건설협회

'16.1분기 건축 수주총액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공종	수주총액	증가율
주택	0.1	△99.3
공장	6.3	△19.8
상업시설	1.4	-
사무실	0.1	△92.1
기타	2.6	64.7

주 : 상업시설의 경우 '15.1분기 실적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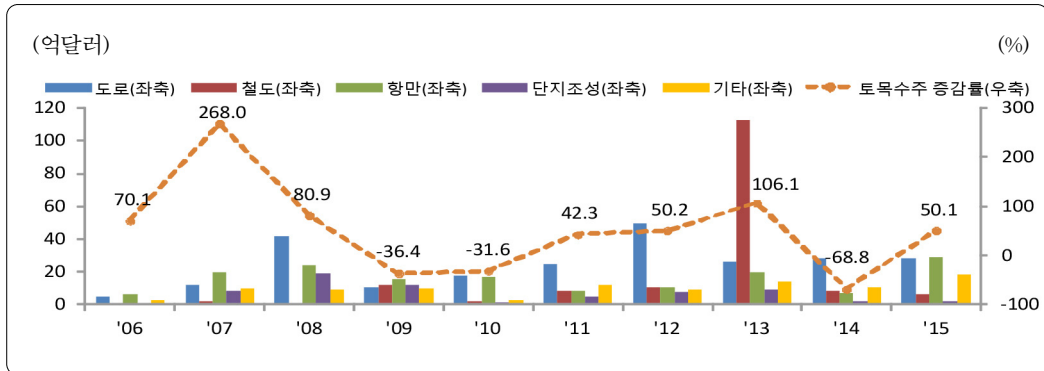
자료 : 해외건설협회

5) 건축 세부공종별 분류 기준 : 상업시설 = 상업시설 + 호텔 + 콘도미니엄 + 백화점, 기타 = 병원 + 학교 + 공항청사 + 창고 + 경기장 + 기타건축

창립62주년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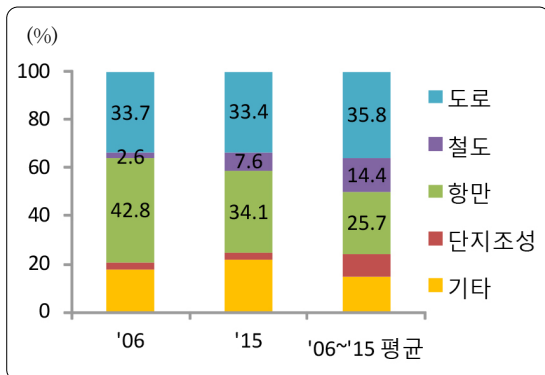
- (토목) 대형 프로젝트 수주 여부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세부공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도로, 항만, 철도, 단지조성 순임
 - '06~'15년 중 토목 수주총액 대비 도로 및 철도 수주총액의 비중은 각각 35.8%, 14.4%로 육로 관련시설 비중이 높은 편임
 - 동기간 항만, 단지조성, 기타 수주총액의 비중은 각각 25.7%, 9.2%, 14.9%⁶⁾
 - 최근 산업설비 수주감소에 따른 업체들의 공종별 다각화 노력 등에 힘입어 실적 호조세 전환

해외건설 토목 세부공종별 수주총액 추이



자료 : 해외건설협회

토목 수주비중 비교



자료 : 해외건설협회

'16.1분기 토목 수주총액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공종	수주총액	증가율
도로	6.6	14.5
철도	23.9	126,550.9
항만	0.0	△99.4
단지조성	0.7	8.1
기타	12.5	1,981.7

자료 : 해외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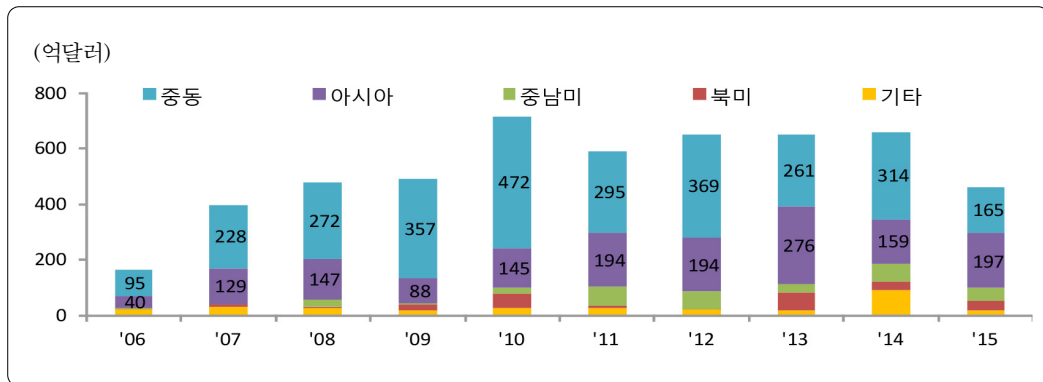
6) 토목 세부공종별 분류 기준 : 기타 = 댐 + 상수도 + 하수도 + 공항 + 조경 + 기타토목

2. 지역별 분석

▶ 중동지역 수주비중이 높은 편이고 최근 아시아지역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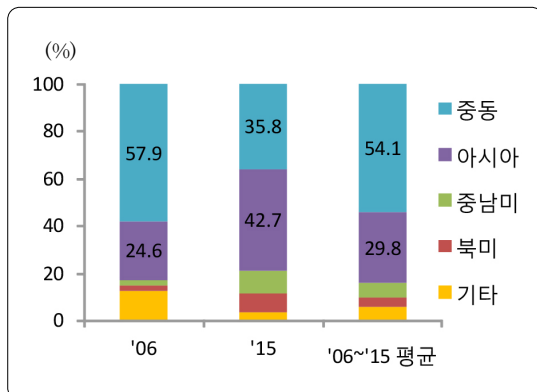
- 지역별로 해외건설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동, 아시아, 중남미, 북미 순임
 - '06~'15년 중 중동지역 수주비중은 54.1%로 '09년에 72.7%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
 - 동기간 아시아지역 비중은 29.8%로 최근 증가세를 보이다가 '15년 43%를 차지하여 중동지역을 제치고 1위 달성
 - '00년대 중반 이후 성장세를 보이는 중남미 및 북미지역 비중은 각각 5.9%, 4.1%이며 기타 국가의 비중은 6.1%

해외건설 지역별 수주총액 추이



자료 : 해외건설협회

지역별 수주비중 비교



자료 : 해외건설협회

'16.1분기 지역별 수주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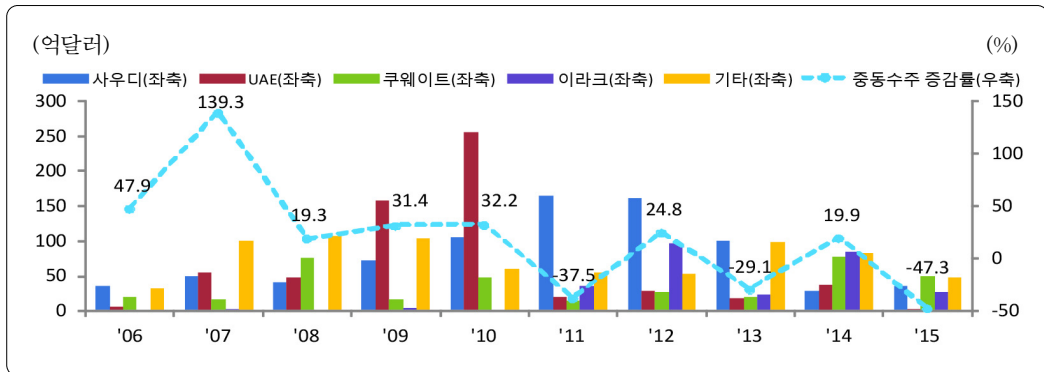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공종	수주총액	증가율
중동	31.2	△23.4
아시아	53.9	10.0
중남미	12.9	△68.4
북미	11.2	2,778.2
기타	3.5	83.8

자료 : 해외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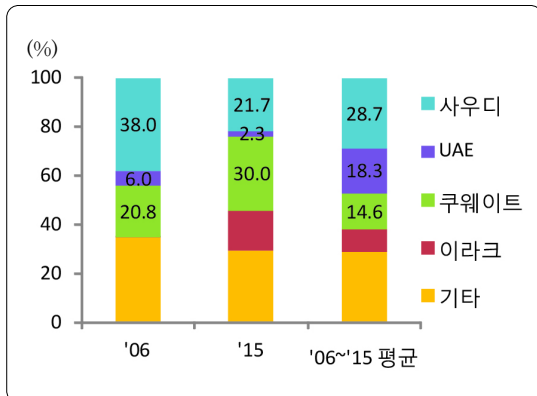
- (중동지역) 해외건설 수주에 있어 전통적인 제1시장이나 최근 저유가 지속에 따른 발주 감소로 부진 양상을 보임
 - 국가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 순임
 - '06~'15년 중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의 수주총액 비중은 각각 28.7%, 18.3%로 양 국가 모두 '10년대 초반 이후 하락세를 나타냄
 - 동기간 쿠웨이트 및 이라크의 수주가 성장세를 보이며 수주합계 비중은 각각 14.6%, 9.5%를 차지
 - '15년에는 기저효과로 수주가 소폭 증가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일부 중동 국가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부진 양상

해외건설 중동지역 주요 국가별 수주총액 추이



자료 : 해외건설협회

중동지역 수주비중 비교



자료 : 해외건설협회

'16.1분기 중동지역 수주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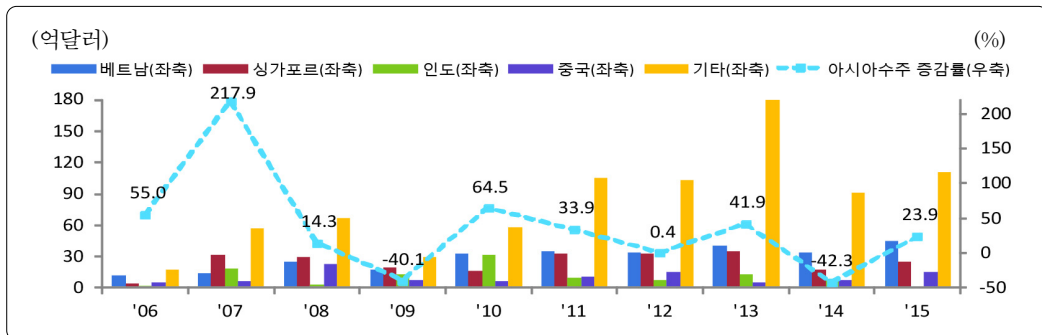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국가	수주총액	증가율
사우디	0.0	△99.8
UAE	0.3	△90.7
쿠웨이트	29.2	2,915,344.0
이라크	0.0	△99.2
기타	1.7	△85.1

자료 : 해외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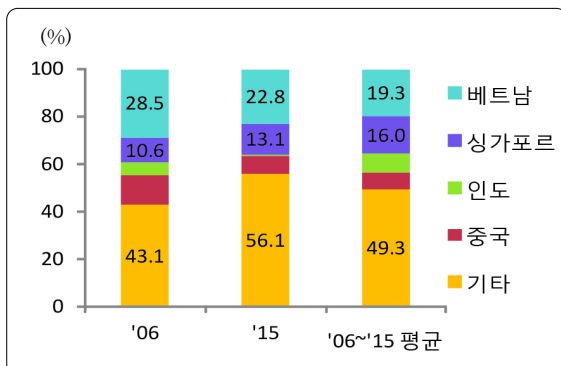
- (아시아지역) 경제성장에 따른 인프라 개발 수요증가로 최근 성장세를 나타냄
 -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중국 순으로 해외건설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06~'15년 중 아시아지역에서의 국가별 수주비중은 베트남(18.2%), 싱가포르(15.5%), 인도(6.9%), 중국(6.8%), 카자흐스탄(6.6%), 투르크메니스탄(6.2%), 필리핀(6.2%), 태국(5.9%) 등으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작음
 - 베트남의 경우 아시아지역 제1시장으로 최근 10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개발에 따른 수주호조가 이어지고 있음
 - 중국 및 인도의 경우 기타 아시아국가와의 경제규모에 비해 건설수주 규모는 작은 수준

해외건설 아시아지역 주요 국가별 수주총액 추이



자료 : 해외건설협회

아시아지역 수주비중 비교



자료 : 해외건설협회

'16.1분기 아시아지역 수주총액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국가	수주총액	증가율
베트남	10.5	△46.4
싱가포르	23.3	192.2
인도	2.4	-
중국	3.6	△41.3
기타	14.1	△8.1

주 : 인도는 '15.1분기 실적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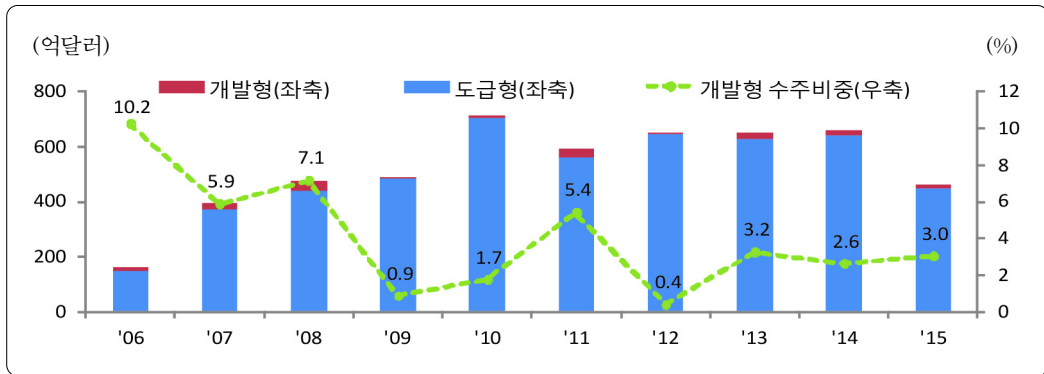
자료 : 해외건설협회

3. 사업유형별 분석

▶ **도급형 수주방식이 대부분이고 개발형 수주는 미미한 수준**

- 사업유형별로는 '06~'15년 중 도급형 수주비중이 96.6%, 개발형은 3.4%로 도급형 수주방식이 대부분을 차지
 - '12년 이후 개발형 수주비중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수주규모는 감소하여 '00년대 중반 수준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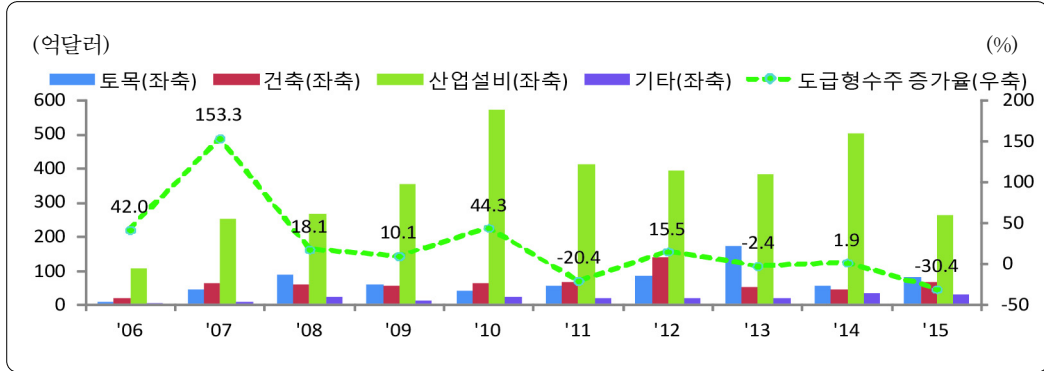
해외건설 사업유형별 수주총액 추이



자료 : 해외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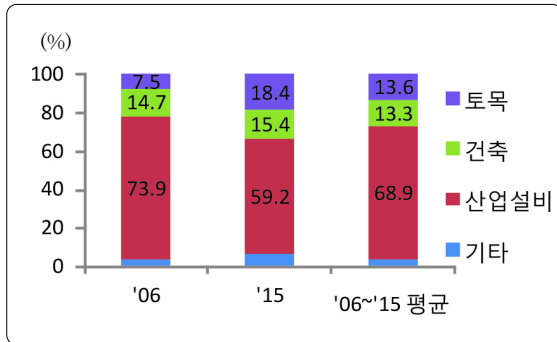
- (도급형) 공종별 전체 수주실적과 비슷한 구조를 보이며 도급형 수주비중은 산업설비, 토목, 건축, 용역 순
 - 최근 10년간 도급형 수주비중(괄호안은 공종별 전체 수주비중)은 산업설비 68.9%(66.9%), 토목 13.6%(13.8%), 건축 13.3%(15.1%), 용역 2.0%(2.1%)로 건축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남
 - '10년 이후 산업설비의 도급형 수주비중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토목, 건축, 용역의 경우 증가세

해외건설 도급형 수주총액 추이



자료 : 해외건설협회

도급형 수주비중 비교



자료 : 해외건설협회

'16.1분기 도급형 수주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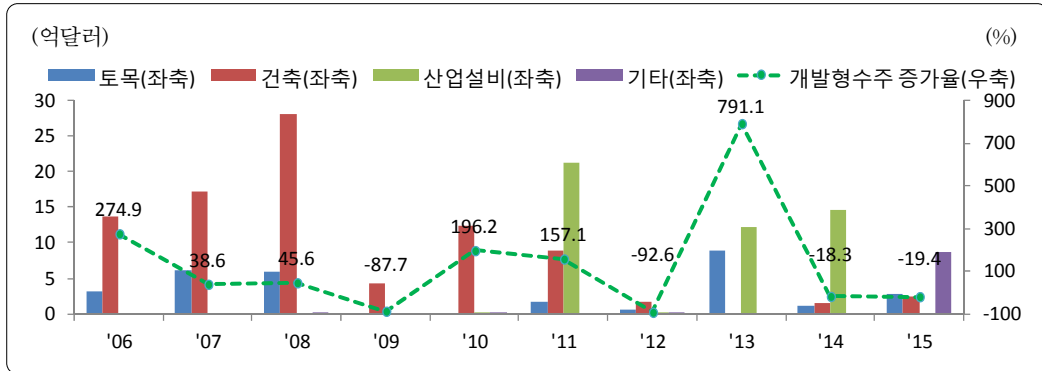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국가	수주총액	증가율
토목	43.7	220.3
건설	10.6	△44.1
산업설비	51.3	△36.2
기타	6.8	△62.1

자료 : 해외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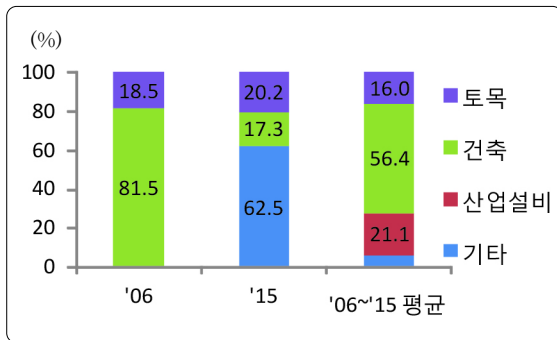
- (개발형) 공종별 전체 수주실적 및 도급형 수주실적과는 달리 건설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용역 비중도 높은 편
 - '06~'15년 중 개발형 수주방식 비중(괄호안은 공종별 전체 수주비중)은 건설 56.4%(15.1%), 산업설비 21.1%(66.9%), 토목 16.0%(13.8%), 용역 6.5%(2.1%)로 건설 비중이 높은 반면 산업설비 비중은 낮음
 - 최근 토목 및 건설의 개발형 수주비중은 감소한데 비해 산업설비 및 용역의 경우 증가

해외건설 개발형 수주총액 추이



자료 : 해외건설협회

개발형 수주비중 비교



자료 : 해외건설협회

'16.1분기 개발형 수주총액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국가	수주총액	증가율
토목	0.0	-
건축	0.0	△100.0
산업설비	0.3	-
기타	0.0	-

주 : 건축을 제외하고는 '15.1분기 개발형 수주실적 없음

자료 : 해외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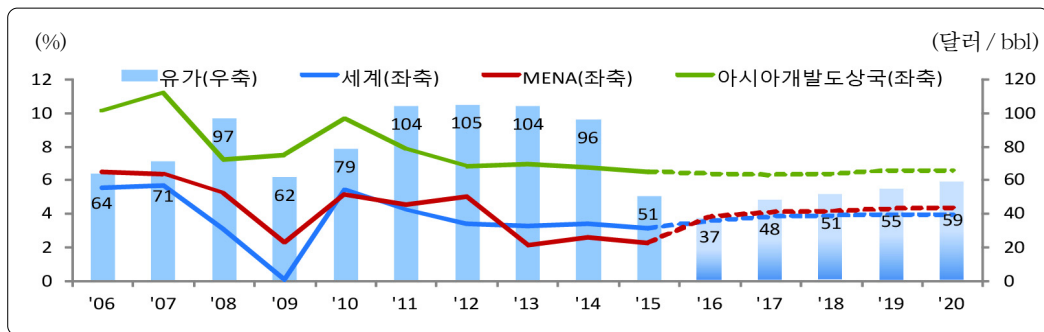
III 전망 및 경쟁력 강화방안

1. 해외건설 수주전망

▶ 이란을 제외한 중동지역 수주는 감소하나, 아시아지역은 유지

- 저유가 지속에 따른 산유국의 재정부담 등으로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건설 수주규모가 축소될 전망
 - '80~'15년 중 유가와 산유국 총생산의 상관계수는 0.92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⁷⁾
 - 향후 유가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산유국들의 저성장 및 이에 따른 건설 수주감소 전망
 - 아시아지역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되며 항만·교량 등 인프라 수주 증가가 예상됨

해외건설 수주관련 주요지역 GDP성장률·유가 추이 및 전망



자료 : IMF, 세계은행

- 이란의 경우 '16.1월 UN안보리의 경제제재 해제조치에 따른 원유수출 재개 등으로 對이란 건설수주가 증가할 전망
 - '06.7월 이후 지속된 對이란 경제제재로 이란의 경제성장률은 하락세로 전환 하였으며 특히 광범위한 제재가 추가된 '10.6월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7) MENA(Middle East, North Africa) 기준, 유가와 세계총생산의 상관계수는 0.85로 나타남

창립62주년 특집

- 이란과 원유생산 규모가 비슷한 이라크의 경우 '04.6월 주권 이양 이후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보이며 '10년 이후 건설수주 급증
- 이란 또한 경제제재 해제 이후 본격적인 원유수출 재개 등에 따라 건설수주 규모가 확대될 예상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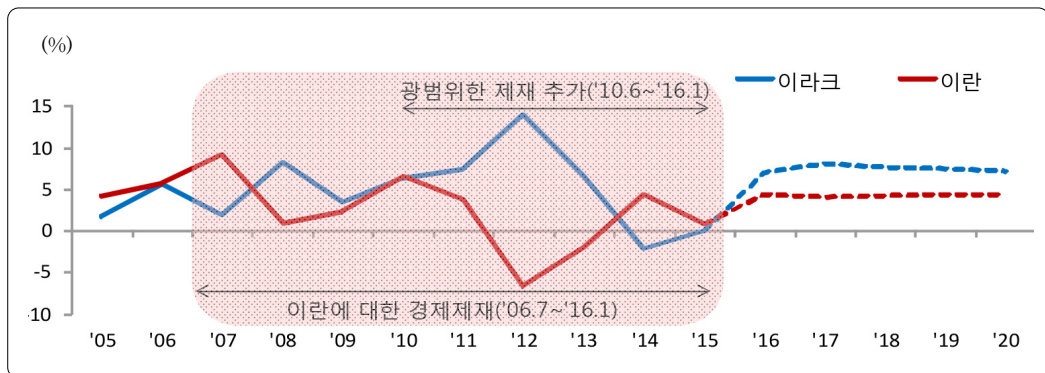
국가별 원유 생산수출확정매장량 순위

(단위 : 천bbl, 백만bbl)

순위	생산(천bbl)		수출(천bbl)		확정매장량(백만bbl)	
	국가	일일생산량	국가	일일수출량	국가	확정매장량
1	러시아	10,840	사우디	7,658	베네수엘라	298,400
2	사우디	9,735	러시아	4,594	사우디	268,300
3	미국	8,653	캐나다	2,733	캐나다	172,500
4	중국	4,189	UAE	2,500	이란	157,800
5	이란	3,614	나이지리아	2,411	이라크	144,200
6	캐나다	3,603	이라크	2,390	쿠웨이트	104,000
7	이라크	3,368	쿠웨이트	1,824	러시아	103,200
8	UAE	2,820	앙고라	1,815	UAE	97,800
9	쿠웨이트	2,619	카자흐스탄	1,365	리비아	48,360
10	베네수엘라	2,500	베네수엘라	1,358	나이지리아	37,070

자료 : CIA, The World Factbook(201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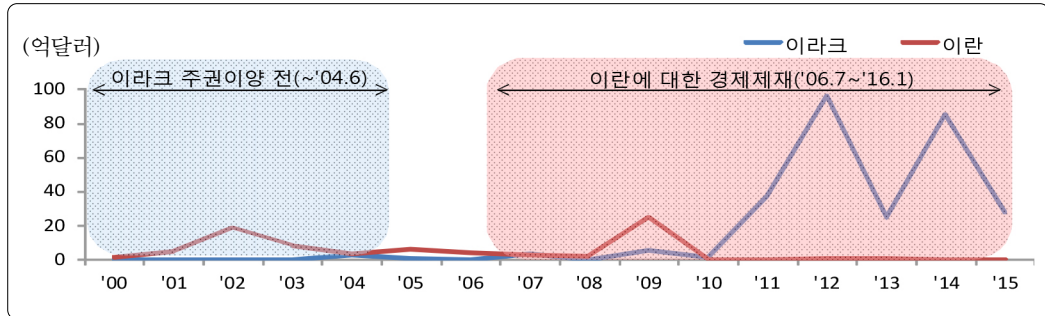
이라크 및 이란 GDP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자료 : IMF

8) 이란 건설시장은 제재 해제 이후 '16년 500억달러 규모에 이르고('14년 483억달러→'15년 461억달러→'16년 496억달러 예상, Global Insight), 이후 매년 3% 이상의 성장률 기록 전망(BMI : Business Monitoring International)

對 이라크 및 이란 해외건설 수주추이



자료 : IMF

2.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방안

▶ 공종별, 지역별 다각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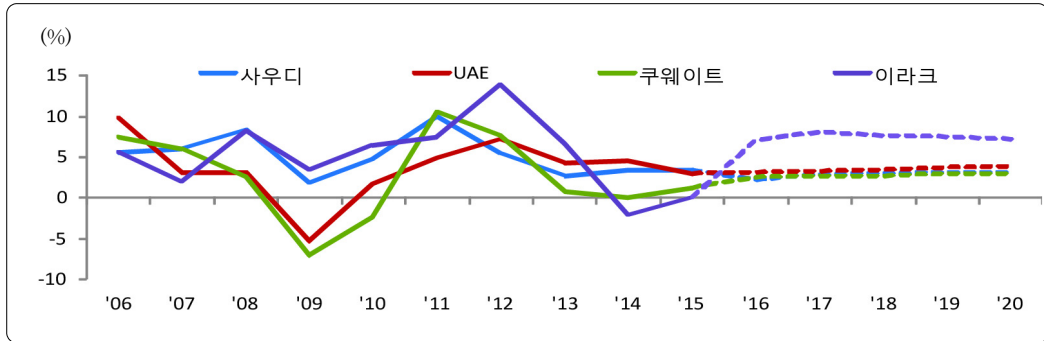
- 최근 수주비중이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지역별로는 중동지역에 대한 수주비중이 높은 상황임
 - '06~'15년 중 산업설비 및 중동지역 수주비중이 각각 68%, 54%로서 특정 공종 및 지역에 편중되어 세계 건설시장 수주규모와 불일치⁹⁾
 - 산업설비 편중은 특정 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 증가 및 국내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중동지역 편중은 유가하락 시 우리나라 해외건설 주요 발주국들의 경제성장률 둔화¹⁰⁾에 따른 발주물량 감소 및 기존 발주철회 등 대외요인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우려됨

9) 공종별 세계 건설시장 비중('14년 기준, %) : 주택분야 38, 인프라(교통·운송, 에너지, 공중보건) 32, 비주택분야(산업용 플랜트, 오피스, 공공·상업용) 30 (자료 : IHS)

지역별 세계 건설시장 비중('13년 기준, %) : 아시아 27, 유럽 21, 북미 15, 중동 15, 아프리카 12, 중남미 10(자료 : ENR)

10) '16년 세계경제성장률이 3.6%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우디 2.2%, UAE 3.1%, 쿠웨이트 2.5%, 이라크 7.1%, 이란 4.4%로 이라크 및 이란을 제외한 중동지역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IMF)

해외건설 수주관련 중동지역 GDP성장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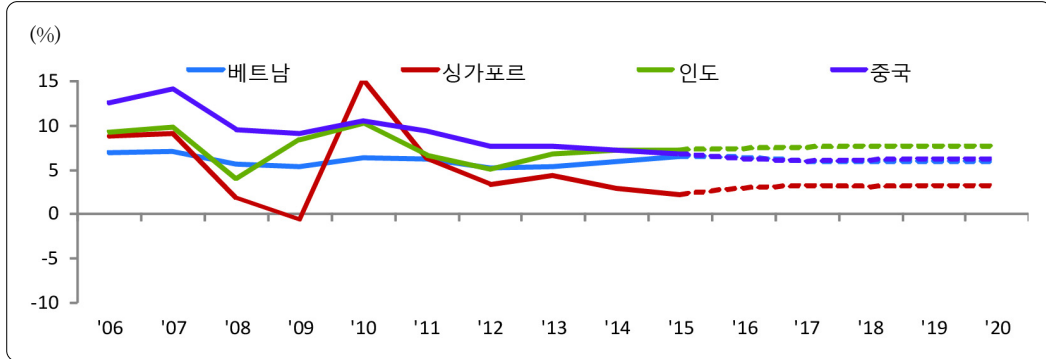


자료 : IMF

- 아시아지역의 인프라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수주를 확대하는 등 해외건설 시장의 다변화 모색 필요
 - 저유가 지속으로 경기회복 지연이 예상되는 중동지역과는 달리 아시아 지역은 경제규모 확대¹¹⁾에 따른 인프라개발 수요 및 도시화 진척으로 인한 주택건설 수요가 상대적으로 양호할 전망
 - 또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정책으로 인프라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아시아지역 주요 건설시장이면서도 우리나라 업체의 진출 취약 국가인 인도, 중국 등에 대한 시장개발 확대 필요
 - (인도) 100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시개발사업),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DMIC) 프로젝트(철도망구축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철도 준고속화 프로젝트 등
 - (중국) AIB 출범('16.1월)에 따라 본격화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일환인 동북아 고속철도망 시범사업(유라시아이니셔티브정책) 등에 대해 진출 가능

11) 아시아지역 주요 국가의 '16년 경제성장률은 중국 6.8%, 인도 7.3%, 베트남 6.5%, 싱가포르 2.2%로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시아지역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IMF)

해외건설 수주관련 아시아지역 GDP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자료 : IMF

▶ 엔지니어링(용역) 및 투자개발형 수주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

-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해외건설시장 점유율 대비 개선 필요
 -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시장 점유율은 '14년 기준 7.1%로 중국, 스페인,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5위권
 - 이에 비해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8위('15년 기준 7위)로 해외건설시장 점유율 순위와 비교 시 낮은 수준

국가별 해외건설시장 매출액 점유율 순위

(단위 : 억달러, %)

순위	2014			2103			2012		
	국가	매출액	점유율	국가	매출액	점유율	국가	매출액	점유율
1	중국	897	17.2	스페인	799	14.7	스페인	729	14.3
2	스페인	684	13.1	중국	790	14.5	미국	715	14.0
3	미국	594	11.4	미국	710	13.0	중국	671	13.1
4	프랑스	514	9.8	프랑스	507	9.3	독일	435	8.5
5	한국	371	7.1	독일	466	8.6	프랑스	432	8.5
6	독일	338	6.5	한국	424	7.8	한국	414	8.1
7	이탈리아	299	5.7	이탈리아	289	5.3	이탈리아	309	6.1
8	터키	293	5.6	일본	222	4.1	일본	210	4.1
9	일본	218	4.2	터키	204	3.8	터키	168	3.3

자료 : ENR,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인용

국가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종합 평가

(단위 : %)

순위	2015		2014		2013		2012		2011	
	국가	점수	국가	점수	국가	점수	국가	점수	국가	점수
1	미국	100.0	미국	100.0	미국	100.0	미국	100.0	미국	100.0
2	중국	80.1	독일	80.0	중국	77.2	중국	88.0	중국	91.4
3	스페인	78.2	중국	79.8	독일	73.5	독일	78.0	이탈리아	81.1
4	독일	77.2	스페인	77.0	프랑스	68.1	이탈리아	76.5	영국	79.1
5	프랑스	75.6	프랑스	75.7	스페인	67.9	오스트리아	75.4	독일	79.0
6	영국	75.1	네덜란드	73.1	영국	67.9	스페인	74.7	프랑스	77.9
7	한국	73.8	영국	72.3	한국	67.8	한국	73.8	네덜란드	76.2
8	일본	72.3	한국	72.1	이탈리아	67.0	프랑스	73.6	호주	74.8
9	네덜란드	72.3	일본	70.9	일본	65.4	영국	72.9	한국	73.7
10	터키	69.9	스웨덴	70.6	오스트리아	64.6	일본	71.6	벨기에	73.5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기술력 중심의 엔지니어링(용역) 수주능력 제고를 통한 해외건설 수주의 고부가가치화 필요
 - 건설 엔지니어링(용역) 분야는 설계·계획, 운영·관리, 감리 등 기술력 중심의 고부가가치 분야로 진입장벽이 높음
 - 국내기업은 그동안 효율과 시공능력을 중시하고 엔지니어링(용역) 기술은 외국에 의존해 온 경향이 있어 엔지니어링(용역) 수주는 '12년 이후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
 - '12년 이후 엔지니어링(용역) 수주실적은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15년에는 전년대비 42.4% 성장
 - 엔지니어링(용역) 수주 비중은 '06년 0.6%에서 '15년 6.5%로 증가하였으나 '06~'15년 중 비중은 2.2%로 여전히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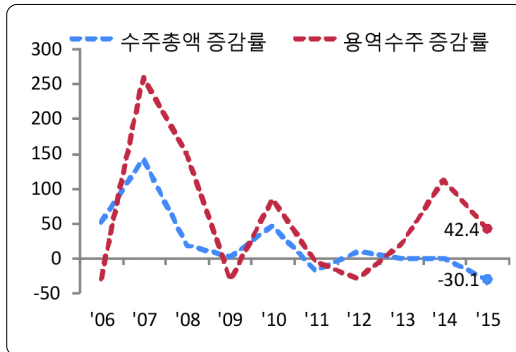
건설분야 국가전략 기술의 우리나라 기술수준

(단위 : 년, %)

기술명	최고기술품국 (기술격차)	기초연구 수준		응용개발연구 수준	
		그룹	기준	그룹	수준
해양공간 개발기술	미국(6.9)	추격	74.3	추격	77.3
초고층 건물 건설기술	미국(5.6)	추격	74.3	추격	77.3
지능형 건물제어기술	미국(3.1)	추격	75.3	선도	84.3
슈퍼 건설재료 및 자재기술	일본(4.6)	선도	82.2	선도	83.5
미래 첨단도시 건설기술	미국(4.7)	추격	75.6	추격	79.1
복합 지하 대공간 활용기술	일본(4.7)	추격	77.0	추격	76.6
최첨단 인프라 구조물 건설기술	미국(5.2)	추격	78.0	추격	79.7
극한공간 개발기술	미국(10.9)	추격	61.5	추격	60.8
첨단플랜트 원천기술	미국(3.3)	선도	82.7	선도	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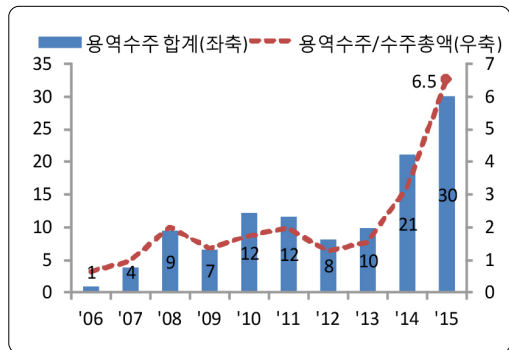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년 기술수준평가(2015.4)

수주총액 및 용역수주 증감률 추이



자료 : 해외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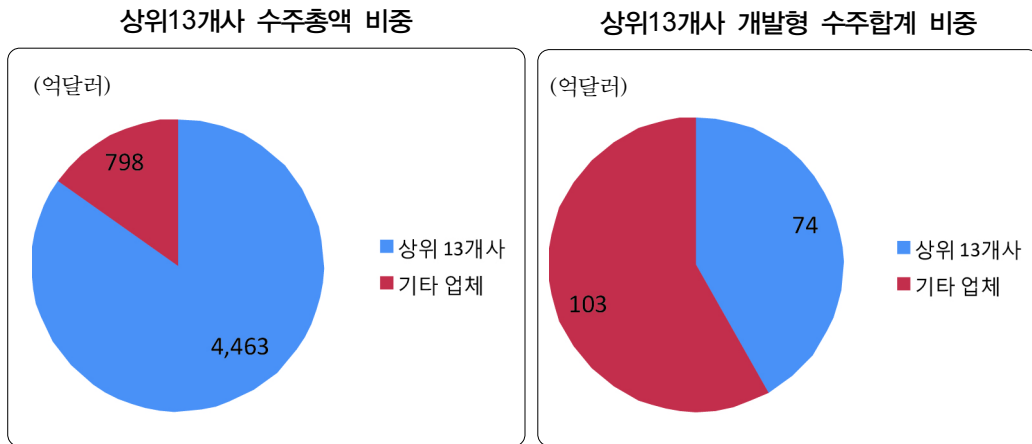
용역수주 합계 및 비중 추이



자료 : 해외건설협회

-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형 수주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 필요
 - 단순도급형 사업은 입찰경쟁이 치열하여 수익성이 낮은 반면 투자개발형 사업은 사업개발, 지분투자, 제품구매, 설비운영 등 사업의 전과정에 참여해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
 - 투자개발형 사업은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가 빈번한 단순도급형 사업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국내업체간 저가수주로 인한 출혈경쟁을 줄일 수 있음
 -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는 단순도급형이 대부분으로 특히 상위 건설업체의 투자개발형 수주비중이 낮음

- '06~'15년 중 투자개발형 수주비중은 3.4%(상위 13개사¹²⁾의 경우 1.7%)로 세계 선진기업과 비교시 매우 낮은 수준¹³⁾
- 동기간 상위 13개사의 해외건설 수주총액 비중은 85%에 달하나 투자개발형 수주비중은 42%에 불과



자료 : 해외건설협회

자료 : 해외건설협회

▶ 리스크 분산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제언

-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구성·운영 및 공동투자,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종별, 지역별 다각화 추진 필요
 - 수자원 산업, 교통시설, 도시개발 등 공종다각화를 위하여 해외 대형발주 사업별로 분야별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수주지원단¹⁴⁾을 구성하여 다양한 해외 인프라건설 수요에 대응

12) '06~'15년 중 해외건설 수주금액 누적합계가 100억달러 이상인 업체로 현대건설, GS건설, 삼성ENG, 삼성물산, 현대ENG, SK건설, 현대중공업, 대우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한국전력공사, 한화건설임

13) 해외 선진기업들의 경우 투자개발형 사업비중이 전체사업의 60~70% 수준(자료 : 건설경제신문)

14) 인도, 필리핀 인프라 개발사업 수주지원단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지 진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민간기업 참여('15.7월)

- 각국의 인프라금융공사, 인프라펀드운용사 등과의 인프라사업 공동투자를 위한 MOU체결,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¹⁵⁾을 중심으로 현지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수주지역 확대
- 원천 건설기술의 배양 확보를 위한 공공분야 시범사업 시행 및 국내 업체의 M&A, 기술제휴 등 검토 필요
 - FEED, PMC¹⁶⁾ 개념을 응용한 사업모델을 공공분야에 시범 적용하여 기획·설계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천기술 배양
 - 원천기술의 시급 중요성에 따라 단시간 내에 기술과 시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해외 업체와의 M&A 및 시장배분, 신기술 공동투자 등 전략적 제휴방안 검토

15) 공공기관 참여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되, WB, ADB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및 수익성이 높은 PPP 사업 등을 중심으로 참여

16) FEED (Front-End Engineering and Design) : 개념·기본설계
 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 프로젝트 종합관리